

# 「NHI-Live(7-9월)」 발간 기사 목록

vol.51

| 구성                        | 주요내용  |
|---------------------------|---|
| NHI News(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837 466 1720 576">□ 마약 없는 건강사회, 먹거리 안전 체계 교육(7월)<br/>- 국정과제 실시간 공개강좌 '식약처'편 개최 관련</li> <li data-bbox="837 687 2107 797">□ 5급 공채 합격자 328명, 공직 생활 시작(9월)<br/>- '제68기 신입관리자과정(공채)'수료, 수습 근무 후 내년 9월 정규임용 관련</li> <li data-bbox="837 909 1861 1078">□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 해수부 차관에게 듣는다(9월)<br/>※9.18.(월) 보도예정<br/>- '9월 온통 Live 국정과제' 유튜브 통해 실시간 송출 관련</li> <li data-bbox="837 1189 2074 1424">□ 칠레대사관, 잼버리 지원해준 국가인재원에 감사서한 보내와(9월)<br/>※9.18.(월) 보도예정<br/>- 제25회 세계잼버리 칠레 참가자 국가인재원 입소 관련, 지원활동 및 주한 칠레대사 감사 서한 등</li> </ul> |
| NHI Plus <sup>+</sup>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837 1534 2136 1644">□ '알잘딱깔센(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활용하는 HRD 직무용어 (9월)<br/>- HRD관련 직무용어 설명 등</li> </ul>  |
| 기 타(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837 1769 1861 1818">□ (퀴즈 이벤트) 웹진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퀴즈 구성(9월)</li> </ul>  |

## 마약 없는 건강사회! 깐깐한 수입식품 검사체계!

— 국민이 묻고 식약처장이 답하는 '온통 실시간 국정과제' 공개강좌 개최 —

7월 25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마약 안전망·수입식품 안전관리 등 식의약 안전행정혁신에 대해 식약처장과 함께 토론하는 실시간 공개강좌가 열렸다.

이번 강좌는 유튜브 방송 '인재교육티비(tv)'를 통해 실시간 문답이 가능한 대화형으로 진행되었으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오유경 식약처장, 전북대학교 정재훈 교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성일 책임연구원이 출연하고, 이현웅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던 이번 강좌는 마약류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식약처의 추진정책과 수입식품 안전을 지키는 검사체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1부 '마약 없는 건강사회로 국민의 일상을 행복하게!'에서는 ▲마약중독의 실태와 현황 ▲마약류 예방 교육, 오남용 관리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어진 2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에서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현 수입금지 유지 ▲그 외 지역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발표 후 정부 입장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장의 서류·현장·정밀 수입검사 영상,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예방 홍보 영상을 활용해 국민의 이해를 도왔다.

출연자들은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제안하는 생각(아이디어)과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며 강좌를 이어나갔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국민의 안전·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강좌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온라인 학습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당신이 받은 마약 처방 식약처는 알고있다!

'23. 7. 25.(화) 14:00 - 15:50  
LIVE 유튜브 인재키움TV 실시간 송출

# 일본산 수산물 검사 팩트.체.크!



이현웅  
YTN 아나운서



김성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정재훈  
전북대 교수

문의전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개발과 043-931-6530~1



## 5급 신입사무관 328명, 공직 생활 시작

— '제68기 신입관리자과정(공채)' 수료, 수습 근무 후 내년 9월 정규 임용 —

2023년도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합격자 328명이 17주 동안의 교육을 마치고 사무관 시보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 이하 '국가인재원')은 9월 1일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제68기 신입관리자과정(공채)'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은 성적 우수자 시상, 교육 수료증 및 임명장 수여, 공무원 선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사무관 시보로 임용된 328명의 신입사무관은 1년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행정실무를 익히는 수습 근무를 마친 후, 내년 9월에 정규 임용될 예정이다.

신입관리자과정은 ▲공직 자세 확립을 위한 공직 가치 ▲정책역량향상 ▲공직 적응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운영됐다. 공직가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스스로 체득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의 사고·토론 수업과 역사·안보 현장 방문학습 등을 병행했다. 또한, 정책역량 향상을 위해 정책 과정단계별 요구되는 필요역량을 함양하는 균형적인 교과도 진행했다. 특히, 인공지능(Chat GPT),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의제 설정과 갈등 대응 전략 수립 등 디지털 기반의 응용 교과도 신설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정책 대응 역량을 높였다. 아울러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한 국장급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 조직 내·외 소통법(팀 빌딩 기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을 함께한 이번 교육을 무사히 수료한 것을 축하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앞으로도 무엇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해수부 차관에게 듣는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

— '9월 온통 실시간 국정과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송출 —

9월 19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현황 및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 등 해수부의 주요 현안과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해수부 차관과 함께하는 실시간 공개강좌가 열렸다.

강좌는 유튜브 방송 '인재교육티비(tv)'를 통해 실시간 문답이 가능한 대화형으로 진행되었으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해수부 박성훈 차관, 서울대학교 조양기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창모 본부장이 출연하고, 흥현미 KTV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은 강좌의 주요 내용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방안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 그리고 하반기 해양수산 주요 정책 등이었다.

전반부 '오염수 대응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서는 ▲해양 점검(모니터링) 현황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어 후반부 '해수부 하반기 주요 정책'에서는 ▲해양의 가치와 해수부의 중요 역할 ▲추석 민생대책 등 중점 추진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출연자들은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제안하는 생각(아이디어)과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며 강좌를 이어나갔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양수산 민생 안정 대책 등 시의성 있는 주요 정책 내용을 전달하고자 이번 강좌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필요한 핵심 국정과제를 적기에 전달하며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Demand  
온통 Live 국정과제  
시리즈

**인재교육.tv**

# 오염수 방류 진실

LIVE

유튜브 인재교육TV 실시간 송출

**'23. 9. 19. (화)**

**14:30 - 15:30**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조양기**  
서울대 교수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흥현미**  
KTV 아나운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개발과  
☎ 043-931-6530~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친절과 보살핌” 주한칠레대사 감사 서한

— ‘세계 잼버리대회’ 참가한 210명 칠레 대원, 좋은 기억 안고 떠나 —

“210명의 칠레 스카우트 대원들과 동반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세심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 칠레대사가 최근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대원들을 지원해준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서한을 보내왔다.

마티아스 대사는 “210명의 칠레 대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환대와 친절로 맞이한 김채환 국가인재원장과 모든 관계자에게 고맙다”며 “새만금 본부(캠프) 일정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인재원이 소년·소녀 칠레 대원들을 특별하게 보살펴 줬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사는 “특히 대원들로부터 국가인재원에서 제공한 숙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진심으로 감명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대원들에게 보여준 친절과 호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그들이 아주 좋은 기억을 안고 한국을 떠났다”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국가인재원은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칠레 대원 210명에게 숙식을 지원하고 음악, 사물놀이, 마술, 태권도 공연 등 칠레 대원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대원들이 국가인재원에서 좋은 기억을 안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칠레 잼버리 대원들을 맞고, 헌신적으로 지원해준 직원들과 유관기관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 '알잘딱깔센(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활용하는 HRD 직무용어

— 인적자원개발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첫 단추 —



인재 개발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싶다면, HRD 직무용어의 이해는 기본이다. 그런데 기초적인 개념이나 각 용어에 따른 의미와 차이 등은 다소 복잡하기 마련이라 높은 진입장벽이 느껴질 테다. 따라서 최근 신조어로 알잘딱깔센(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실무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요소를 명확하게 정리했다.

### 어디서 본 듯한 HRD, 너의 이름은?



앞서 소개한 HRD는 명칭으로는 상당히 낯익지만, 정작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우선 의미를 살펴보자면 Human Resource Development의 약자로, 흔히 인적자원개발이라고 일컫는다. 즉, 조직 내 각 구성원이 역량 개발과 업무수행 개선, 더 나아가 성과 향상을 이루도록 뒷받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기술, 태도, 역량, 행동 등 직무별·직급별로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며, 단지 훈련이나 개발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 문제 해결까지 총체적으로 접근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부서 간에 다채롭게 협조해 전략적 HRD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는 방식이 있다. 이로서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국가기관, 기업 등이 한층 성장하게끔 지원할 수 있다.

### 단 한 글자 차이로 달라지는 HRM



HRD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HRM은 Human Resource Management로, 인적자원관리를 뜻한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구성원이 지식 획득, 정보 접근, 기술이나 기능 향상, 직무태도 개선 등을 달성할 수 있게끔 돕는 활동이다. 그 일환으로 인재 확보·배치, 평가제도, 인사관리 등을 짜임새 있게 기획하며, 계획적인 체계를 수립해 시행한다.

언뜻 HRD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는 분명하다. 둘 다 조직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나 HRD는 직원 개발에 중점을 두며, HRM은 관리·감독에 집중하는 영역이다.

### 언뜻 복잡해 보이는 HRD 용어, 보고 또 보고



기본 개념을 확인했으니 원활한 HRD 직무 수행을 위해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용어를 알아보자. 비록 복잡해 보이는 영어 약자가 많으나 올바른 이해가 선행한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1) HRIS(Human Resources Information System)

인적자원정보시스템이라고 불리는 HRIS는 교육과 회계, 지원서 ☑ 근태 ☑ 성과 관리 등 기관이나 기업 내 모든 인적자원 정보를 소프트웨어로 관리하는 도구다. HRIS 담당자는 조직 특성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발굴할 뿐 아니라 비교하고 검토하며 선정해 각 구성원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상상을 위해 관리해야 한다. 예컨대 과거엔 엑셀이나 워드로 인사 데이터를 다뤘다면 현재는 직원 정보와 목표 관리, 성과 평가, 급여 정산 등을 각종 HR 플랫폼에서 처리한다.

#### 2) TA(Talent Acquisition)와 TM(Talent Management)

우선 TA는 인재 채용 혹은 확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다. 따라서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확인하고 경영진이나 실무자와 상담해 정확한 역할, 요구하는 역량, 팀 분위기에 어울리는 성향 등을 확인해야 하기에 소통 능력은 곧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또, 내부 체계에 대해 분명하게 파악하면서 새로운 인물을 선발하는 프로세스와 공고 관리, 정보 수집, 관련 업계 채용 동향 조사와 적용 등을 추진한다. 여기서 범위를 더욱 확장한 개념이 TM 즉 인재 관리로, TA가 우수 인재 확보에 주력한다면 해당 업무는 성과 관리, 경력 개발 등을 추가로 담당한다. 또한,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을 측정해 성과를 더욱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 3) L&D(Learning and Development)

학습과 개발, 곧 L&D는 각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커리어를 견고하게 축적할 방법을 연구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직무이다. 다르게는 C&D(Coaching and Development)로 지칭하기도 하며 경력 개발에 필수적인 직무 교육이나 임원 대상의 리더십 교육 등을 준비해서 실행한다.

#### 4) CE(Culture Evangelist)

기관이나 기업의 조직문화 담당자를 CE라고 한다. 최근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함께 주목받는 HR 직무인데 조직문화의 의미가 광범위하고 다소 생소하다 보니 상황 따라 CE에 대한 해석이나 업무에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조직 정체성과 문화를 개선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직원 대상의 인식개선, 각종 캠페인, 리더십 교육, 사내 소통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 5) ER(Employee Relations)

노무관리라고 할 수 있는 ER은 한마디로 노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지칭한다. 참고로, HR팀에 담당 역할을 하는 직원을 두는데 조직이 크다면 자체 팀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와 관련해 많은 활동을 하는 직무이며 회사-노조 간 입장 조율은 난도가 높아 전문적인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하다. 담당 직무로는 노사 관리, 일하기 좋은 직장(Great Work Place, GWP) 실현, 직원 고충 처리, 간담회 운영, 산재 관리 등이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복수노조 허용이 이뤄진 이래 ER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나를 더 스마트하게 해주는  
Self 인재개발 퀴즈!



Quiz \_\_\_\_\_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  
 을 통해 송출된 7월과 9월  
 「온통 실시간 국정과제」 강좌에서는 각각  
 오유경 식품의약처장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출연하여 '마약 없는 건강사회,  
 먹거리 안전 체계 교육'과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실시간 공개강좌를 진행하였다.  
 이 채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발행하는 <NHI 매거진>  
 대표 정책부터 행사, 이슈, HRD 소식에 이르기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최신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소식지입니다.



정답을 맞힌 7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보내드려요!

응답기간

2023. 10. 04 (목) ~ 2023. 10. 27 (월)

응답하기